



#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23호 2012년 11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usa@yahoo.com



제33회 Home Coming Day

## 관악캠퍼스 '서울대인의 모천회귀'

### 동문가족 화합의 한마당, 등산 교내탐방-공연 미주 동창회 주관의 5대 명산 관광도 이어져

모교 관악 캠퍼스에서 매년 개최 기념일을 전후해서 시작 중인 'Home Coming Day' 행사가 벌써 올해 33회째로 지난 10월 15일 많은 재외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만물은 한국의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동문

들도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니 가히 '서울대인의 모천회귀(母川回歸)'라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주 동창회에서는 김은중(상대 50) 동창회장을 비롯해 이진구(동대 80) 전 회장, 윤상대(전 회

장, 오인환(문리 63)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 박옥자(을대 71) 총무 국장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참가했다.

'제33회 Home Coming Day & 서울대 동문 가족 화합 한마당'을 타이틀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1부 등산·교내 탐방, 제2부 기념

행사, 제3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 교내 탐방에서는 이날 동문들만을 위해 세계적인 자연과학인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유감각을 특별히 개방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 등산 행사에서는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대운동-순환도로 등산-연주암 방향-순환도로 등산로 입구 합류-신공학관-버들길에 이르는 등산과 걷기 일정이 이어졌다.

동문들은 길어가는 이 가을 날 울긋불긋 오색의 단풍으로 물든 캠퍼스와 관악의 주변 경관에 감

← '제33회 Home Coming Day' 행사에 참여한 동문 중 일부가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미주동창회 이진구 전 회장, 김봉구 미대 서울 동창회장, 오인환 차기 미주 동창회장 부부, 박옥자 총무국장, 윤상대 전 회장 부부, 김은중 서울 동창회장 부부, 이창균 미대교수, 금대식 서울 동창회장 부부.

탄을 자아냈다.

모교 관악 캠퍼스 길과 등산로 중 일부는 서울시에 의해 '가을길' 수도권의 가장 아름다운 코스 10'에 선정된 바도 있다.

제2부 기념 행사에서는 임광수 동문회장의 인사말과 오인환 회장의 축사, 손일근 상임 부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제3부에서는 재한교사(사대 78)·김정인(미대 4년 재학) 동문의 사회로 각 나라에 재학생들의 풍물제 연행과 인스트로 동아리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정수인(을대 98) 동문의 판소리에 오병식(을대 74) 동문의 '오성 율동 랩'으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같은 재학생들의 신나는 공연 뒤 참가 동문들은 2인 1조 단리길로 비롯해 골짜기로 걸다라기·댄스 파티 등으로 폐회한 가을 하루를 마음껏 즐겼다.

<연이 계속 편집주간>

HF76INC, Chairman  
이명선 동문...15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 김주진(법대 54) 동문

### Penn에서 '뛰어난 졸업생상' 수상



알코(Akor Technology) 회장으로 Penn에서 한국학 설립, Forbe's 지 2011 세계 최고 자선사업가 2011 중 한 명으로 선정

현재 '알코(Akor Technology)' 회장으로 재직 중인 김주진(James Jo-jin Kim) 법대 54-스킨 동문은 지난 10월 26일 모교 펜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뛰어난 졸업생' 상을 받았다.

사상식은 이 대학의 아널버그 센터 강당(Arnberg Center Auditorium)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서 열렸다.

시상식 후 수상자들은 특별히 지정된 식탁에서 참가한 친척 및 친구들과 식사를 나누었다.

김주진 회장은 알코 그룹을 세계적인 최대의 반도체 공급, 시판, 조립 등에 집중하는 대기업으로 이끌고 있다.

바른 가운데 김 회장은 모국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모교인 펜 대학에 한국학 석사, 언어로 부의 사자 해 여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미국내에서 제일 번성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대학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세실스 주진 김(James Jo-jin Kim)' 이름을 수여했다.

또한 김 회장은 단대(Warnton, UPenn Business School 세계 동문포럼'을 서울에서 주최 했다. 그 외에도, 김 회장은 펜 대학의

이사, 다른 분과 대학의 이사로 활동했고, 현재도 계속 명예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도 최고 자선 사업인으로 알려져, 저수(Gesu high school)고등학교, 미술 박물관, 교향악단, 스포츠관 연구소 등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

김 회장은 초창기에 빌라는비(Villanova) 대학에서 가르치며 이 있고, 그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 전문지 '포브'(Forbe's)는 지난 2011년 세계 최고 자선사업가 48명 중 한 명으로 김 회장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김주진(을대 24) 1년, 7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글> 조봉원(법대 53)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면전에서 계속〉

특히 행사에서 임광수 총동창회장이 경품으로 송용사를 제공해 큰 관심을 끌었다. 기타 스퀘어, HX Day 숯불대 나들이용 라이드 램페라기, 집시 방고로를 비롯한 정품들이 제공돼 당원들들에게는 아주 푸짐한 하루가 됐다.

모교 캠퍼스에서의 행사가 모두

끝난 뒤 동문들은 새로 건립된, 세계 대학 총장의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유명해진 'SU 장학회빌딩'을 관람했다. SU 장학회빌딩을 관람한 차기 회장,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 인사가 참석했다.

주 동창회가 마련한 '교과 5대 명산(속리산·계몽산·내장산·신운산·지리산)'관광을 즐겼다. ■

←반기문 UN사무총장(왼쪽) 이택 오바마 대통령과 환담중이다(옛 사진). 이택 사친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김용 총재(가운데)와 함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다.



오바마·클린턴, 반기문 총장과 김용 총재에게

##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비하 오바마 미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1일 미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 배치를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한 것으로 지난 알려졌다. 비하 오바마 미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한국인이 맡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들은 사친을 지난 10월 22일 이택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녹색기후기금(GCCF)사무국 유치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인연의 차기 유엔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하고, 주요 국제기구 유치가 성공하면서 한국 외교 무대에서

주요 국가로 발돋움 한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GCCF의 한국유치는 대한민국의 큰 자선이 될 것”이라며 “국제 상상에 따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 총장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외교적 분야에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절상”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똑같은 맥락의 언급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뉴욕 에다르 호텔에 개최한 “클린턴 글로벌 네트워크” 연례 포럼에 반 총장과 김용 총재를 연사로 초청했다.

두 사람은 마이크 류크 윌리엄스 회고경연자(GCCF), 라니아 요르단 여왕과 함께 연단에 올랐으며, 두 사람이 따로 따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의 (한국어) 대화를 못 알아들었다”며 웃음을 보인 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용 총재는 그 간담회(차기 51년 동문)들의 장남으로 동양인 최초로 아이비 리그 중 하버인 닥터스대 총장을 역임했다. ■



## 명예의 전당 ‘베리타스 홀’

‘SU 장학회빌딩’ 2층에 ‘베리타스 홀(Veritas Hall)’ 즉 ‘명예의 전당’이 있다. ‘만남(Meeting)·소통(Communication)·성공(Success)·유지(Relax)’을 코드로 복합문화, 만남의 장과 복지 공간이다.

이곳은 총동창회와 모교연혁, 역대 동창회, 총장, 관악 대상 수상자, 자랑스런 서울대인 수상과 등이 열릴 모험과 함께 기록해 있다. 동창회관 건립기금과 장학기금 기부자들의 명단이 영구 보관되고 있다.

동문을 위한 Club Lounge로 세

미나·연회·전시·음악회·출판기념회, 기타 이벤트의 대·소형 Conference room이 있다. 커피와 음료와 샌드위치·샐러드·스낵과, 서울대에 관한 각종 기념품 코너 등이 있어 서울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동문들을 대상으로 ‘동문 수대 카사(사친 장소)’를 무료로 발행해 저마다의 추억(이탈리아 식당)의 식사에서 10% 할인, 2층 ‘Colette’의 커피는 30%를 할인해주고 있다. ■

## LA Inc. President 이훈표(의대 58) 동문

### 모교 의대에 30만 달러 기부 약속



모교 의대에 30만 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이 기부 약정금은 ‘이훈표 박사 순환기과와 연구 및 교육기부’이라는 명칭으로 모교 의대에 설치된다.

이훈표 동문은 “좋은 대학에서 교육받은 데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동안 내가 받은 혜택을 유학생들에게 전해주고 모교와 나라의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이처럼 기부를 약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동문은 LA Harbor City의 Kaiser 병원에서 심장내과 Chief로 32년간 재직하면서 2천여 건의 심장 Pace Maker 수술을 끝내고 이의 인체수술에 필수인 Safe Sheath를 발명해 특허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거의 모든 Pace maker 수술에 이 기구가 사용되고 있다. ■

## 시사만평 박준천(인문대 79·번호사)

과인 사자와 전쟁을 이끌고 있는 최지성 삼성 부회장도 서울대 동문



사회대 무역학과 71학번

| 차 례                                                                                                                                              | 주제사 / I / All the people, the lib | 11-14. 미주 동문동맹                              | 23. 세기적 인물 한수인 여사               |
|--------------------------------------------------------------------------------------------------------------------------------------------------|-----------------------------------|---------------------------------------------|---------------------------------|
| 3. ML포논란 규명 서훈 김/ 미외회 '교과'와 고종국지향 정권은 폐기해야/ 일일 4. 이회특검기류 둘러싸고 5. 유세도 5. 매경/ 기류이 벌써 여기/ 유세도 6. 도사 서훈 가졌 21있었는 채/ 추억속에 일하는 것/ 이 기류엔 타임머신 여행들/ 나의 첫 | 7. 판도라의 상자/ 오비밀                   | 15. 이태일의 초대석·이명진 동문                         | 24. 정전 62주년 Eisner tower        |
|                                                                                                                                                  | 8. <관악대>지옥에서의 탈출/ 통일은 갈 날 스타일이다   | 16-18. 미주지의 동창회 소식                          | 25. 고교 동문 동창                    |
|                                                                                                                                                  | 9. <관악대>·수인의 보이저호 되고 힐링담          | 19. <과학탐색>오전 9시에 퇴직 신개념 치 토폴/ 사할라는 이별 뒤 하늘을 | 26. 동창회비, 광고비, 관악후원금, 각종 후원금 동맹 |
|                                                                                                                                                  | 10. <관악대>·수인의 보이저호 되고 힐링담         | 20. <New Coming Day>고려의 단종은                 | 27-29. 동문 입소속                   |
|                                                                                                                                                  | 11. <관악대>·북한방문/ >북한이 자신감 생긴 것 같다  | 21. <New Coming Day>고려의 단종은                 | 30. 동창회 기부 최장년/ 고집/ 편집취지        |
|                                                                                                                                                  |                                   | 22. <관악대>·추사 김정희의 특이한 서예                    | 31-32. 광고                       |

## NLL포기 논란 규명 쉬운 길



송중환 (문리 64)

영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지난 10월 22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회의에서 진행된 노무현 정부의 서해 방위한계선(NLL) 포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보듯이 야당의 기사가 앞으로 국가보안회의 기보라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열람될 가능성이 제각각 다르다. 대통령이 북한 정상회담을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북한측이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진실의 규명을 위해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 2007년 10월 11일 정당 및 원내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10월 12일자 '소름끼치는 노무현 NLL' 영도 포기' 제1쪽의 BBC 동영상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이 자명한 설명으로는 지난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창설 자치로 제5차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한 이 영도를 NLL에 합의한 그는 "...형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해선 획정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 다음은 중 회고통신기자단 대담에서 1953년 8월 30일 이후 NLL을 지키기 위해 장대들이 수교하고 회생해 온 것을 부시라는 뜻한 발언도 있다. 이것도 NLL을 옹호 한 것은 분명하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나뉠 것을 그러는 것 같다"고 했다.

"10.4 선언" 제3항 하단 서해 중공도 어귀의 기점과 경계와 수교는 조정에 관련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NLL 때문에 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군사문제는 분야별로 경제적 문제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합의"라고 자전했다.

북한은 1954년 11월 30일 '조선 중앙일간지'에서 NLL을 조선 경제선으로 인정했고, 1973년 10월 25일 이를 폐기한 후 1978년 10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등 여러 계기에 걸쳐 남북의 경제선으로 인정해 왔던 한 주

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9월 2일 북한 경제선에서 훨씬 남하한 경계선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3월 23일 '서해 5도 방위수호'를 공포하고, 1999년 6월 15일 제1 연평해전, 2002년 11월 22일 제2 연평해전 등 NLL을 무색케 하는 도발들을 행했다.

북한이 바라는 대로 서해 공동어로 구역이 NLL 남쪽에 지정되면 NLL이 무력화 되고 만다. 이성을 가장한 북한 군함이 인연 할 바다 카타이저지 중공도를 위해 서해 55는 고립되고 수도 서울 서쪽 방위는 어떻게 될지 때문이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이 보장될 수도 없고 국민의 영해도 세탈된다.

지난 10월 문제인 민주평화통상 회의는 2007년 11월 평양에서

## 미 의회 '고구려 고 중국 지방정권론' 폐기해야



신용하 (문리 57)  
서울대 전 교수·현재 울산대 석좌교수·학술원 회원

미국 의회 조약국은 11월 중순 발간한 '중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명 유전'에 대한 주장이 이란 보고서에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에 예속된 지방정권이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의 소위 '동북공정'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거짓이기 때문에 비판 없이 중립적으로 소개 인용하면 극히 위험한 독과 같은 것이다.

고구려는 한국 민족의 선조 국가의 하나로서 수(隋), 당(唐)과 당당히 겨루던 독립국이었다.

중기 중의 하나를 들면 중국 측 기사인 '구당서(舊唐書)'에 기록하기를 당의 초대 황제인 고조(高祖)가 662년 고구려 영류왕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제 두 국가(고구려와 당)가 서로 화평을 공하게 되었으니(今兩國和好), 수나라의 고구려 정복 때 포로가 된 수나라 병사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당 고조는 고구려를 지

방정권으로만 볼지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국(國)'이라고 해 고구려가 당과 이적자를 내린 한 독립국가임을 잘 인지하고 공문서로 존중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수나라 군인 포로 1만 명을 당에 돌려보내 주었다고 구당서에 기록되어 있다.

고(古)중국에서는 정사에도 고구려를 고려로 기록한 경우가 많았다.

고려는 현대에는 '가오리(Kaoli)'이지만 고대에는 '코리(Kori)'였다. 코리야(Koryu)는 고구려(高句麗)에서 나온 한국 민족과 국가가 명칭이었다. 투르크족이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코리'를 서방세계에 처음 알렸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고조선이나 고구려를 고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도 역사학계에서 공격하고 있는 한국 민족에게는 명 정에서부터 매우 모욕적인 일이다.

역사는 진실 그대로 써야 한다. 중국 동북공정의 '고 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와 '중국 지방정권'은 중국 민족에게는 전혀 진실이 아니며 황당무계한 한국 역사나조고 역사 책이다.

미국 의회가 북한 유고시 중국 개입의 역사적 근거로 '고구려가 당의 지방정권이었던' 동북공정 주장을 인용할 경우 동북공정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비록 미국 의회조약국이 중국 정 주장을 승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비단 일이 동북공정 인용한 것은 위험한 일이다. 회원들을 위한 계몽을 소책자라 하더라도 미국 의원들

은 한국 역사나 중국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다행히 미국 의회 조약국이 최초로 한국 대사관에 보내주어 한국 정부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결과, 한국의 입장을 부속으로 첨가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 측이 "한국의 주장을 본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좀 더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진실을 보지 않고 본래 미국의 한국 역사를 전할 때 미국 학자들의 서검으로 붙인 후에, 중국 동북공정의 거짓된 진실 중국 주장을 비판하기가 중국 국의 북한 개입 위협설을 경고하여 동북아 역사에 불의한데 이용했다고도 비판하여 편견이 주입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확고해야 지혜롭고 정치에 이용해야 하는 매우 위험하다. 구한 말 일제가 일본군 조문본 부 안에 조선사 원문을 설치하고 한일 합방의 역사적 근거로 '임나일본부론'을 내세운 결과 지금도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를 가르치고 있다.

또 한(漢)나라 초 여몽 사가 복승(伏勝) 등이 고조선 황제의 역사적 근거로 '가사조선설'을 내세웠고 그 때부터 1000년을 더했다.

이제 동북공정의 역사 남조·해국의 폐해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알림

벌써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제22차 평의회 회의를 열어 Los Angeles의 제11대 미주 동창회 Washington D.C의 제12대 미주 동창회장으로 인수·인계되는 시기입니다.

다우이 인 제22차 평의회 회의에서 Washington D.C의 제12대 미주 동창회장인 차차기 동창회장(제13대 미주 동창회장)의 선출이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미주 동창회에서는 추천위원회 제1회 제4차 회의에 차차기 미주 동창회장의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 **후보 대상** = 차차기 총동창회장(제13대 미주 동창회장)

▶ **선사 기준**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제1 서울대 지역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혹은 총동창회장단에서 탁월한 노력을 보여준 등분, 혹은 일반 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

▶ **추천서 제출처** = 미주 동창회 사무실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로 e-Mail (snussusa@yahoo.com) 또는 Fax(310-515-7883), 또는 일반 Mail로 제출 바람.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추천위원회 위원장 송준영  
\*회장 김준영









기획특집 &lt;가을 · 독서... 그리고 삶&gt;

## 나의 첫 주례사



문화 칼럼

# 판도라의 상자



김훈(작가 58)

희랍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Pandora)'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초의 여자이다. 프로메테우스(Prometheus)가 천제(天帝)의 불을 훔쳐낸 데 노한 제우스(Zeus) 신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화신(火神) 헤이스트스(Hephaestus)로 하여금 흙으로 판도라를 만들게 해놓고, 온갖 악성·무기·절투·시기 등이 담긴 각종 악재 채를 넣어 판도라의 탄생축하를 위해 상자를 만들게 하였다.

판도라는 프토메테우스 신의 동생인 헤파이스토스가 상자를, 그 상자를 절대로 열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제우스의 일광한 경고를 무시하고 열어 보자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결국 죽지 못한 악성 유성미 상자를 패게 나내 신에게 불 신의 제물로 만들었더니 미지미기로 '회박'하는 그 상자 속이 활났게 됐다고 한다.

결국 악은 다 빠져 나가고 '회박'만 남게 되니, 이것이 '회박'하는 것은 아무런 상성이 없는 것이니, 그 상자를 열어 보자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우선 인간은 비록 여자의 호기심에 매이지 제우스의 경고를 무시하여 온갖 불행들 겪으면서 살고는 있지만 '판도라의 상자' 속에 남아 있는 '회박'한 나쁜은 남아 있어 절망할 수 있다고 된다는 것을 말하는 신화인 것으로 해석되어 전해져 내려온다.

'회박'이라는 인간이 가진 악한이나 나쁜 것은 원인으로 사 '회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신화가 쓰이고 전하여져 내려오고 있다고 보아야 무방하다.

판도라의 상자는 종종 회박 있는 우리 현대 사회의 속세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지만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은 주로 악성 유성미가 담긴 상자를 열어 보자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오늘 날의 인간사회에 판도라의 상자는 호기심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재앙을 주는 기념비적인 상자로 여겨진다. 인간이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그때에 종종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26절에 나오는 뜻의 악재가 나오는 말들을 지기하고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회박한 악재가 나오기 보았다고 한다.

# 묘비명



조세천 (작가 73)  
서울대 전 교수·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

묘비명이란 내가 죽은 후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글인 스스로 또는 지인들의 묘비명이다.

요즈음 학계에서는 글쓰기 훈련,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어르신들에서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자신의 묘비명 쓰기 연습을 한다.

'크리스마스엔, 그 스킨과 저 열광한 자기가 죽은 후 남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야겠다'.

하루 내렸지 멀지 않은 곳이다. 묘비명이란 내가 죽은 후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글인 스스로 또는 지인들의 묘비명이다.

요즈음 학계에서는 글쓰기 훈련,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어르신들에서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자신의 묘비명 쓰기 연습을 한다.

'크리스마스엔, 그 스킨과 저 열광한 자기가 죽은 후 남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야겠다'.

하루 내렸지 멀지 않은 곳이다. 묘비명이란 내가 죽은 후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글인 스스로 또는 지인들의 묘비명이다.

요즈음 학계에서는 글쓰기 훈련,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어르신들에서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자신의 묘비명 쓰기 연습을 한다.

'크리스마스엔, 그 스킨과 저 열광한 자기가 죽은 후 남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야겠다'.

하루 내렸지 멀지 않은 곳이다. 묘비명이란 내가 죽은 후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글인 스스로 또는 지인들의 묘비명이다.

요즈음 학계에서는 글쓰기 훈련,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어르신들에서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자신의 묘비명 쓰기 연습을 한다.

'크리스마스엔, 그 스킨과 저 열광한 자기가 죽은 후 남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야겠다'.

하루 내렸지 멀지 않은 곳이다. 묘비명이란 내가 죽은 후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글인 스스로 또는 지인들의 묘비명이다.

프랭크 카프카 감독의 영화 '묘비명'에는 자살하고 난 다음 자신의 삶이 어찌 되지는 않았을지 알고 싶어하는 묘비명자가 나온다. 죽음을 가까이하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훌륭한 나이에 상한일이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기일(11월 27일)을 맞아 그의 유명한 묘비명을 두고 온갖 고위급 사회에서 묘비명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함께 검토되는 뜻에서 원문을 예로 그대려 적어본다. "I kno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는 그 "오래 살다나 내 인생 잘 알았다" 또는 "오래 살다나 잘 죽었다"라는 뜻에서 영감을 얻어 묘비명을 썼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설가·수필가·음악 평론가로 알려진 노벨 문학상 카라키의 영화상을 모두 거머쥔 사람이다. 그는 결코 어영부영하지 살인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다.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묘비명들은 대체로 심오하거나 가슴 찡한 것들이지만, 나는 너무도 순진하고 삶을 행복으로 승화한 묘비명들을 특별히 좋아한다.

장생에 '천하에서 모든 불리한 일을 겪어본다'라고 썼다. '내가 죽었다'라고 썼다.

일본의 신상 모리야 세이의 묘비명은 "내가 죽으면 슬픔 따위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미국의 프리디먼 박사는 "내가 죽었다"라고 썼다. "내가 죽었다"라고 썼다.

하버드 이민 요트 해학적인 묘비명은 가장 아름다운 기구이다. "내가 죽었다"라고 썼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그 묘비명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잘 알았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어떤것으로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 확장된 시선 LA에서 출판기념회

↑확장된 시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문인들이 기념촬영했다.



LA에 거주 중인 확상희(문리대 56·사진) 동문의 시집 '고통이여 나는 웃는다'에 대한 출판 기념회가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LA '3개의 점

(2410 James M. Wood Blvd)에서 열렸다. 미주 시인협회 장교장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출판 기념회는 미주 시인협회의 문예수회장의 인사말과 김문희 국제청 미주연합 회장의 축사, 기타 참석 문인들의 서정 및 시 낭송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문희 국제청 부회장은 회장을 축사를 통해 "확상희 시인은 30년 이상 지기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변해우리는 강산이 세번이나 변할 세월을 같이 교류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확상희 시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작고 고통을 강한 생명력으로 인내해가며 이치된 태인 작

품질을 순간까지 된 대 대 전경상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저자 인사에 나선 확상희 시인은 "한국인은 특히 옛부터 한이 많고 고통이 많았던 민족"이라며 "나 스스로도 시를 통해 그리스의 심자들과 같은 고통을 견뎌내야 할 수 있는 때까지 모든 것을 나날이 고조하고 하는 것이 표현의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확 시인은 이어 "작품을 쓰고 나서도 불수록 부족한 데가 많아 끊임없이 고공스리수나 LA에 와서 되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오는 이치된 많은 분들이 와서 환영해주니 고독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석구 동문 WKNTV 대표로 취임



중앙일보 뉴욕지사 사장을 역임하고 본 동창회보 주필을 지냈으며 현재 동창회보 논설위원인 이석구(문리대 69·사진) 동문이 최근 다재능 플랫폼 IPTV회사 WKNTV의 대표로 취임했다.

구조를 거부하고 저렴한 월하드의 불법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수십만 세대를 합법시도하고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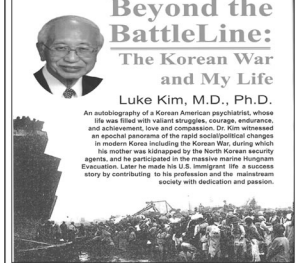
WKNTV는 한국어 방송을 통해 한인 1세대와 한국에 배운 2세대가 느끼는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영어가 불편한 이민 1세대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시청료를 가구당 월 15.99달러라는 파격적 가격으로 책정했다. 또 마일리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WKNTV는 11월 1일부터 미국(JRBC) 비록 CJ(EAM/DRAMA)·CJ(EAM/VARIETY)·ETN·WOW·Mnoney·NIB·MOVIE19 등 11개 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영한다. 이밖에 한국의 공중파 및 영화, 음악 채널 4-5개사와 계약한 채널, 채널을 늘리나라 계획을 하고 있다.

WKNTV는 선착순 1만 명에 한해 한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인 12월 15일까지 무료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한인이 참정권을 갖고 참관하는 것 말고도 해외한인 선거 관련 뉴스·교양·뉴스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하여 해외한인의 불만 및 언어 편견을 보정하기 위해서다.

뉴욕이 본사인 WKNTV는 미주 한인 신문인 WKNTV의 (외국)정경인 뉴스를 뉴스를 통해 한인들에게서 미주 전역의 한인 신문들 통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 Beyond the Battle Line: The Korean War and My Life

Luke Kim, M.D., Ph.D.

An autobiography of a Korean American psychiatrist, whose life was filled with valiant struggles, courage, endurance, and achievement, love and compassion. Dr. Kim witnessed an epochal panorama of the rapid social/political changes in modern Korea including the Korean War, during which his mother was kidnapped by the North Korean security agents, and he participated in the massive marine Hungnam Evacuation. Later he made his U.S. immigrant life a success story by contributing to his profession and the mainstream society with dedication and passion.

## 김익창 박사 자서전 출판기념회

김익창(의대 51) 박사가 저서인 'Beyond the Battle Line'을 내고 11월 17일 캘리포니아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부제가 'The Korean War and My Life' 일만 김익창 박사는 6.25 한국전쟁을 통한 배지된 경험과 그동안의 삶을 경이한 것이다. 이 자서전 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 기술돼 있다. 'An autobiography of a Korean psychiatrist, whose life was filled with valiant struggles, courage, en-

durance, and achievement, love and compassion. Dr. Kim witnessed an epochal panorama of the rapid social/political changes in modern Korea including the Korean War, during which his mother was kidnapped by the North Korean security agents, and he participated in the massive marine Hungnam Evacuation. Later he made his profession and the mainstream society with dedication and passion.' \*\*\*



## 설치 미술가 서도호 동문 현재

## 봉고트릭 개조 1인용 호텔 선보여

미술가 서도호-건축가 오희 형제, "다들 런던미크를 원하지만 그 틈새공간을 주목합니다"

도심에 건축을 하나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으니 누구나 기념비적인 무언가를 떠올릴 것

이다. 더구나 실용적인 기능이 없는 장식용이라니 말이다.

하지만 광주 비엔날레의 폴리(Folly-설립적 공공건축물) 프로젝트 작품을 보면 반은 형제 1.2개의 봉고 트릭을 개조한 1인용 호텔을 내놓았다.

1-1)봉고트릭을 개조한 1인용 '호텔'로, 투숙객이 들른 내사를 돌리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주회한다. (2) '반' (反)기념비적 일을 지향하는 틈새호텔은 어느 곳에 정착하는 틈이 없도록 붉은 벽돌이나 화석 등의 자식 때비를 붙인 위치박을 이용해 마치 골목의 일부인 양 위장한다. (3) 호텔 손가락이 길고, 등장은 덩치다. 등장은 두 살 어린 형제 쪽으로 쏠렸을 뿐이다. '형이 형 노릇 하나니요. 이어서부터 형을 존경했어요.'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하는 서도호 동문(문리대)이 최근 전시 준비를 위해 동생 서도호 씨가 사들인 대의 서울 합동대 사수실을 찾았다. (4) '호텔'의 내부와 고고 원목마루를 깔고 천연가죽과 인조대리석으로 꾸민다. 사위사실과 화장실뿐 아니라 TV·냉장고·미니바 등 고급 호텔의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다.

눈에 확 띄는 영구적 기념비라는 거리가 없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데다 어느 골목에서 잡으려도 위치 박도 위치박을 가릴 때까지 없다. 세계적 설치미술가 서도호(50) 동문과 건축가 서도호(50) 동문은 대 (48)의 '호텔'이다.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이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죠. 하지만 랜드마크를 이루는 것은 공감이 없으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 로컬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트릭을 개조할 수 두 형제의 말이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 한미수교 130주년 기념 음악회 열어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정장주 건호 68)가 지난 9월 30일 MIT Kreuze Auditorium에서 열린 한·미수교 130주년 기념음악회인 'Friendship Concert'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치렀다.

이 콘서트에는 700여 명의 청중이 모여 30여 명의 한·미연합 합창단과 60명의 오케스트라가 연달아 연 가요의 선율을 즐기며 지난 3월 체결된 FTA 뿐 아니라 그간 한·미 수교를 통해 이뤄낸 정치·경제적 성과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Boston Korean Chorus (단장 장수인·음대 78)의 박진욱 기피자의 지휘로 Halfway Sinfonietta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윌리엄 텔 서곡에 이어 김기영 작곡, 초연인 창작 합창곡 '고향의 봄'을 Boston Korean Chorus와 첼보리지 한인교회 성가대가 함께 불러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미사의 청중들 또한 감동을 받았다.

Boston Korean Chorus와 미얀마합창단(MIT Concert Choir, Neshoba Valley Choral, The First Unitarian Society of New York)이 함께 부른 베

르디의 하브리 노래들의 합창 (Nabucco)과 개선 행진곡(Aida)으로 전반부를 마무리했다.

음악회를 주관한 보스턴 영사관 대표인 박강호 총영사(문리대 78)가 130년의 긴 역사를 통한 양국에 우호관계 강화에 대해 언급하며 격려사를 전했다.

미국측에서는 배사주세즈루 Treasurer인 Steve Grossman이 양국 관계 및 배사주세즈루와 한국의 관계를 통해 얻은 효과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면서 행사를 주관한 Boston Korean Chorus 및 장수인 단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마스키나 카발레티아 푸스티카나 간주곡으로 2부 공연이 시작되는 동안 "You and I..."라는 메시지가 담긴 130년 양국 관계를 담은 동영상이 상영

돼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양국 대표의 격려사에 이어 흘러나온 찬란한 음악과 함께 한미수교 130년 역사의 영상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며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져 만든 찬란한 분위기는 자못 숙연했다.

이와 본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매도텔 연인 합창 교향곡의 제4장, '환희의 송가'를 위해 179명의 한·미연합 합창단이 모두 무대에 올랐으며 4명의 솔로리스트(음대 79인) Besley Roy Thomas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50분여 이르는 대곡이 진행되면서 무대는 점점 달아 올랐고, 한국인과 미국인 연주자들이 모두 뒤섞여 쏟아낸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이라는 웅장한 외침

으로 마무리된 환희의 송가에 크게 감동한 청중들이 박수에 이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섰고 금기가 모든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를 통해 연주자 및 취객에게 격려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모습은 한미 양국의 130년이라는 긴 세월의 수교 역사와 뒤섞이며 환인사회의 및 미국 사회 모든 이에게 진한 감동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음악회 후 Strauss의 Radetzky March, 오케스트라 연주도 열려 중과 합창단이 하나가 되어 행진곡의 박수를 치며 모두 함께 여흥을 즐기면서 이 날을 마무리 하였고, 청중들 뿐만 아니라 연주자들도 다같이 한 마음으로 수교를 통한 한미수교를 느끼며 공연을 나눌 수 있었던 너무나 뜻 깊은 공연이었다.

박강호 총영사는 이 행사의 주역 측으로서 최선의 지원을 해주었고, 주관한 보스턴 한인합창단의 장수인 단장은 행사 기획부터 MIT 장소와 공연의 기획과 합창단 섭외 및 전체적인 계획, 조율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수완을 발휘하였다. 또한 이 합창단 이사회의 깊은 한미 수교 130년의 축하를 통해 한미 수교의 선한 속편을 그려냈다.

이 위에 연인합창단과 만일 및 이사, 한인합창단 등에도 많은 후원들이 대거 참가하며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었으며 많은 후원과 가족들이 응원장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며 대미의 동문들과 기어와 함께가 맞이 하시기에 이 날의 행사는... <이제형(금대 9)>



필라델피아 동창회

## Quakerwood Camp Ground서 야유회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50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6일 야유회를 수석 부회장(문리대 64)이 운영 하는 웨이커 타운의 Quakerwood Camp Ground에서 가졌다.

웨이커 타운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외진 감이 있었지만 일단 시내를 빠져나오니 코의 가을 경관을 이따금 좋아 드라이트를 만끽할 수 있었다.

11시가 가까워 오자 동문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던 연휴특정 수(수의와 60)와 원형들이 반겨주었다.

바비루 고기와 준비한 음식이 자리에서 테이블에 동문들끼리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얻은 애인 회포를 풀었다.

점심 식사 후 2부 여흥 순서는 한중회 동문(공대 80)이 맡았다.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보물찾기가 시작됐다. 주회 속 속의 나무, 숲속에 숨겨진 하얀 종이박자를 발견한 동문들의 즐거움만은 여기 거기서 보였다. 이어 매편, 매편, 2인3각 릴레이, 발발판 던지기 등이 이어져 남녀 선후회들이 중심의 세계에 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한중회 동문(원목)의 사회에 따라 동문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다음은 퀘즈 게임이 시작됐다. 키가 크고 시원한 눈을 가진 한중회 동문(원목)이 시침 특 고 질문을 던져 답이 나오면 유머 섞인 코멘트가 즉석에서 터져나와 모든 참석자들이 배를 잡고 웃게 만들었다.

그런 후 김정현 동문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한 친구와 자꾸만 따라가며 게임을 나누고 있었다. 뜻하지 않게 그와 동창(대광고) 김상복씨를 45년 만에 만난 것이다. 이이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둘은 내내 유 행복해 모습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가운데 오후 4시가 돼 돌아 갈 준비를 했다. 오는 12월 1일 라이이 레스토랑에서 있을 연말 파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다.

한중회 동문이 준비한 움터스한 파티가 연말을 맞아 여러 모임에서 쓰면 재미있을 것 같아 일부러 소개하는 바이다.

•달팽이도 이빨이 있다(0) •패종시계가 12시를 알릴 때 마지막 12번째가 제각 12시다(X) •0점형 생각하는 사람은 온 손으로 먹을 만하고 있다(0) •눈을 감고 있다(X) •수승은 출개가 있다(0) •조미료와 줄리엣은 첫 만남 때 Kiss했다(0) •비행기 출발시간이만 물승문이 완전히 도착하는 순간이다(X) •정말은 이리한다(X) •비행기 출발시간은 몇고통 소리는 승객과 선인 이하는 내리까라는 신호로 출발시간은 Kope를 쓰는 시각부터 •파동같은 전 제과 점음은 해리 크기가 다르다(X) •파복은 간을 가지고 있다(X) •파부머리는 다리에 귀가 있다(0) •개배에 담이 난다(0) •대리도 비듬이 생긴다(0) •느르고 제게기를 할 수 있다(X) •사슴의 선계는 원주(0)은목의 반달이 다 다르다(X) •사수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0) •방구를 참으로 물어 해물다(X) •미 최후의 신승카드는 American Express(X) •정말은 디너(Diners Club) •승승이도 지분이 있다(X) •<정복(대대 6)>



뉴욕 동창회 + 뉴욕 음대 동창회

## 임원회의, 김영은 동문 독주회 후원

▶뉴욕 동창회= 뉴욕 동창회(회장 김강수 아대 60) 임원진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박선진(공대 61) 이사장 자택에서 제3차 임원회의를 가졌다. 허리케인 샌디(Sandy)가 상륙하기 하루 전이라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나 임원들은 거의 모두 모여 진행했다.

박선진 이사장 부부가 강성선에게 마련한 음식과 도링프루를 나누며 동창회 원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미리 준비한 추은 음악도 감상하고, 노래 경연도 하며 친목을 다졌다.

뉴욕 동창회는 올해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한 준비모임을 11월 14

일 폴리스의 음식점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뉴욕 음대 동창회= 뉴욕 지역의 음대 동창회는 펠리스트 김익은(사진) 동문의 카네기 홀 독주회를 후원했다.

현재 한국의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익은 동문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뮌헨 카네기홀

와일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 독주회에서 가을 밤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는 클래식 곡들을 선사했다.

모교 음대 미대 학원에서 장학생으로 수학한 김영은 동문은 그동안 음악의 동류분인 해외파진 울림 풍류로 이탈리아 IFAF 콩르토 등에서 두루 임상하며 두각을 나타낼 바 있다.

김 동문은 뉴욕 메네스 음대에서 석사 학위와 뉴저지 커티스 주립대 메이스 그로스트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세계무대에서 솔리스트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수원대학교 초정으로 귀국해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다.

이번 독주회에서 쇼팽-유반-피아볼라와 극 대에 대한민국-파울스-수상한 작곡가 김은에 교수(수원대 작곡과)의 작품 '아라리 IV'를 초연해 감동을 받았다.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솔로 및 실내악 연주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준영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이주 동창회와 남가주 동창회 임원 중 일부가 미대 동문진 측 박익에 참석해 미대 동문진을 축하해주었다. 왼쪽부터 김강수 남가주 동창회 회장, 김성진 남가주 동창회 차기회장, 박선진 미주 동창회 고문(가운데), 이종도 미주 동창회 기금모금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박석훈 고문 부인 박성원 아사(오른쪽).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친목을 다지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벌써 10회째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지내던 동문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서로 더 많이 알게 된 것만 보았을 뿐이다. 아직은 이 전시회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졸업생들의 참여가 약간 저조한 것이 아쉬우나 졸업 작품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회원 모두가 매우 고무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 사진은 김영은(미대 61) 동문의 작품 'The Sound of Autumn'을 배경으로 미주 동창회 박석훈 고문과 김영은 동문, 박 고문의 큰인 박성원 아사, 김강수 남가주 동창회 차기회장이 함께 한 장면이다.

오른쪽 사진은 남가주 미대 동창회 김윤진(미대 67) 동문이 자신의 작품 'Passover-3'과 함께 한 모습이다.

지난 송년회 미대 동문회 회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정경원-신동원-김희자-한혜림-김윤진-신덕원-장정용-김경자-김규자-신정원-송정원-신영자-은남수-김옥자-김경숙-박영자-백혜란-윤재자-한석원-박대-김윤진-그레타스-김주-최영일-홍선애-박영국-배혜숙



남가주 동창회

## 미대 동창회 제10회 작품전 열려

남가주 미대 동창회가 동문들인 Alumni Show 2012)을 지난 11월 3일 LA의 'Lee & Lee 미술대학 동문전(The 10th

Alumni Show 2012)을 지난 11월 3일 LA의 'Lee & Lee 미술대학 동문전(The 10th

Alumni Show 2012)을 지난 11월 3일 LA의 'Lee & Lee 미술대학 동문전(The 10th

Alumni Show 2012)을 지난 11월 3일 LA의 'Lee & Lee 미술대학 동문전(The 10th

Alumni Show 2012)을 지난 11월 3일 LA의 'Lee & Lee 미술대학 동문전(The 10th

Alumni Show 2012)을 지난 11월 3일 LA의 'Lee & Lee 미술대학 동문전(The 10th





## 고국의 단풍여행











## EISENHOWER&lt;2&gt;

김태환/문리대 (60)  
EMiniHaven CEO

Ike's Refusal to Occupy Berlin to Avoid Unnecessary Bloodshed.

During the last phase of World War II in 1945, some quarters in the Allies criticized General Eisenhower's refusal to go to Berlin and occupy the German capital ahead of the Soviets.

The main criticism came from Winston Churchill, the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Let's talk about British foreign policy. Since the defeat of Napoleon Bonaparte, England had pursued the balance of power within the (European) Continent.

Churchill's, and thus Great Britain's, attitude to the decisions on the courses of European War was more interested in the future balance of power in the Continent than in the Allies' war goals.

He continuously delayed the formation of the Second Front (or Invasion of the Continent). He wanted the Nazis and Soviets to bleed longer before the Second Front.

Churchill attended the Yalta Conference with Roosevelt and Stalin in February 1945 and they decided the zones of occupation in Germany. Therefore, he should have known that Berlin fell within the Soviet Occupation Zone.

Why did he want Ike to advance to Berlin and occupy before the Soviets?

First, Churchill simply wanted to disregard the Allied Yalta Agreements.

Second, he wanted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at odds over Berlin on behalf of the traditional British foreign policy.

According to Ike's writing (Crusade in Europe), he explained that he did not get a specific order or directive from his superiors in Washington to advance to Berlin and he did not need to get a cue from Churchill who was not in his direct chain of command.

If Churchill earnestly wanted Americans to occupy Berlin, he should have talked with Roosevelt (while he was alive) about that matter.

Next, he further elaborated that even if his forces had occupied Berlin, it had to be turned over to the Soviets according to the Yalta Agreement. He meant that his forces would suffer casualties while fighting the Germans however small it might be. His reasoning was that why America should suffer its soldiers' blood when the prize (Berlin) could not be

##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Improved Daily Lives with the Superhighway

This is summer vacation season and most of us enjoy long-distance travels. Except for major metropolitan areas where public transportation is conveniently provided, we all take advantage of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Whenever we drive on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we had better thank President Eisenhower.

All of us who came to this country when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was already in place may not appreciate its existence just as we usually do not appreciate sunshine and oxygen. However, older folks who had lived before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was built fully appreciate it.

At a Chamber of Commerce meeting, one elderly lady told me it took five hours for her to drive to the Los Angeles Airport from Woodland Hills (in the northwestern region of Los Angeles) before the freeways I-101 and I-405 were built. When traffic is not heavy, it would take about 45 minutes to make the same trip today.

President Eisenhower participated in the East-West Con-

and towns all across the country, facilitates commerce, and broadens the horizons of most people. During the Roman Empire, all roads led to Rome; however,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connects all corners of this country so that anybody can go anywhere in the country without going through one major hub.

Warning Agains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Last, the most important milestone of his presidency was made during January 17, 1961. That was his warning agains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hile President Eisenhower was serving in the White House as the 34th president functioning as both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U.S. government and Commander-in-Chief of the U.S. forces, he noticed continuing pressure from the military and civilians, represented by lawmakers



the next ten biggest defense spenders. We are experiencing a big budget deficit.

If we are wise enough to be more selective with the defense system and weapons programs, cut excesses in cost overruns, then we may achieve reductions in defense spending for the next decades.

So far, the worst abuses of defense spending are F-35's, which were authorized in 1991 when the Cold War was officially over. The primary contractor had subcontractors in more than 40 states and most of the senators and congressmen from those states acted as supporters for the contractor to pass the bill to authorize to develop the fighter-jet program. They became hostages of the defense contractors, knowingly not because they could not reject the bill because of the jobs involved in their own states.

The fighter jets were never used in either the Iraqi War or the Afghan War. Its cost overrun doubled the initial estimate and its delays put no fixed date for delivery as of this writing.

We should heed the warnings of President Eisenhower to prevent excesses and abuses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e should not follow in the steps of Soviet Union, which collapsed because of the heavy defense spending in the arms race.

As soldier-turned-president, Eisenhower chose a peace with dignity rather than victory at all costs unlike most generals. He kept peace for the whole world, avoiding a potential third world war and banning the cause for using nuclear weapons. He liked soldiers so much that he asked to be buried in the standard Army-issued coffin (GI coffin) when he died.

America is great thanks to President Eisenhower, a great soldier who cared more for the well-being of fellow citizens than he did for guns.\*\*\* <The End>

**-the most important milestone of his presidency was made during his farewell address. That was his warning agains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He knew that one more gun meant less spending for civilian uses, however rich the country might be.**

kept in its own hands. Simply put, Eisenhower respected human lives and did not want to shed blood unless it was absolutely necessary.

As a matter of fact, U.S. forces, in pursuit of retreating Nazi forces in the southwestern sector of Germany, invaded and occupied some areas in the northwestern Czechoslovakia, however, they retreated back to their sector of defeated Germany, giving the land to Soviet forces where they were given the occupation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as a result of the Yalta Agreement.

voys during 1919 and it was very challenging to move convoys from the East Coast (Washington, D.C.) to the West Coast (San Francisco). It took the convoy sixty-one days to cross the country.

During the military campaign in Germany in 1945, as the Supreme Commander, Eisenhower witnessed the efficiency and usefulness of the German autobahn. The German autobahn was built by Hitler to facilitate moving troops from one front (East) to the other (West) in a very fast fashion.

After the Korean conflict came to an end, President Eisenhower requested Congress to fund for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It became the largest infrastructure project in American history and he was very proud of it and considered it one of his most cherished accomplishments during his two-term presidency.

To me,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is the most remarkable public works masterpiece utilized and enjoyed by all walks of life in America. It connects cities

ers to start and/or strengthen new weapons system in the name of "National Defense" to take advantage of the Cold War.

He knew that one more gun meant less spending for civilian uses, however rich the country might be. Ike pointed out that "Every gun that is fired, every warship launched, every rocket fired signifies a theft from those who hunger and are not fed, those who are cold and are not clothed," in speaking before the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Eisenhower made his intentions public. In what may regard as the most important foreign policy address of his presidency, President Eisenhower cautioned those who sought to win the Cold War militarily. These words were aimed at Secretary of State John F. Dulles and his hawkish allies, who had tried to block moving toward cease-fire in Korea.

Right now, the American defense budget is as big as almost half of those of the whole world combined and the same as the combined total of







|                                                        |   |                 |   |                                  |   |                           |          |
|--------------------------------------------------------|---|-----------------|---|----------------------------------|---|---------------------------|----------|
| 성명: 한글                                                 |   | 영문              |   | 단과대학 및 대학명                       |   | 입학연도:                     |          |
| 주소:                                                    |   |                 |   | 전주소                              |   |                           |          |
| 입소 이름:                                                 |   | 입소 주소           |   |                                  |   |                           |          |
| (B)                                                    |   | (C)             |   | (Fax)                            |   | e-Mail:                   |          |
| 연락처: (B)                                               |   | 동장회비 (구독료)      |   | 입소록 광고비                          |   | 특별후원금                     |          |
| 연\$200                                                 | □ | 2011~2012년 \$75 | □ | 입원광고비                            | □ | 동장회 후원금                   | □        |
| 연\$500                                                 | □ | 2012~2013년 \$75 | □ | 2012~2013년 \$120                 | □ | 지부 분담금                    | \$       |
| 연\$1,000                                               | □ |                 | □ | 다자간 발행 1/2 \$200                 | □ | 종신 이사회                    | \$ 3,000 |
| 기타\$                                                   | □ |                 | □ | 다자간 발행기\$500                     | □ |                           |          |
|                                                        |   |                 |   | 천원 (10" x 15.5") \$1000          | □ |                           |          |
| 주소: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   |                 |   | Fax: 310-515-7883                |   | e-Mail: snuausa@yahoo.com |          |
| 지불방법 (Check 또는 Card)                                   |   |                 |   | Pay to order of 'SNUAUSA'        |   |                           |          |
| Visa ( ) Master ( ) American Express ( ) 기타 ( ) 전화 ( ) |   |                 |   | <310-515-7888> ( ) Check No. ( ) |   |                           |          |
| Card No.:                                              |   |                 |   | Security Code:                   |   | Expire Date:              |          |
| Cardholder's Name:                                     |   |                 |   | Date:                            |   |                           |          |
| Address No. Only                                       |   |                 |   | Zip                              |   | Pay to order of SNUAUSA   |          |



| 의료/치과                                                                                                                                               | 교회                                                                                                                                                                                                               | 비영리법인 해방 극지 에너지                                                                                                                              | 병원 / 치과                                                                                                                                               |
|-----------------------------------------------------------------------------------------------------------------------------------------------------|------------------------------------------------------------------------------------------------------------------------------------------------------------------------------------------------------------------|----------------------------------------------------------------------------------------------------------------------------------------------|-------------------------------------------------------------------------------------------------------------------------------------------------------|
| <b>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b><br>* 이영송(치대 65)<br>(323) 266-1500<br>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 <b>라 카나다 한인교회</b><br>육고 현(공대 65)<br>819-790-7320<br>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b>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mp; Polar Engineers</b><br>정진수(공대 56)<br>(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 <b>이종영 치과(치대 74)</b><br>(301) 220-2828 (301)926-9692<br>6201 Greenbelt Rd.Suite 10, College Park MD 20740<br>8931 shady Grove Ct.Gaithersburg MD20877 |
| <b>ISeonho Ha Prosthodontics</b><br>하선호(치대 81)<br>(213) 365-1008<br>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 <b>식품/음식점</b><br><b>강남회관</b><br><b>Kang Nam Restaurant</b><br>323-937-1070<br>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 <b>MD,VA 워싱턴DC</b><br><b>Fairney Asset Corporation</b><br>남옥현(경영대 84)<br>301-279-6969<br>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 <b>GA 조지아</b><br><b>리태일리/자동차</b><br><b>Auto Plaza Group, Inc.</b><br>이영진 (공대 76)<br>678-473-4731<br>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
| <b>의료/내과/전문의</b><br><b>권영재 소아과</b><br><b>* 권영재(의대 57)</b><br>(562) 435-4777<br>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 <b>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b><br>(310)679-3622<br>148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 <b>공인회계사</b><br><b>Lee Kyu Sup, CPA</b><br>이규섭(상대 68)<br>(703) 642-2900<br>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93                    | <b>FOB Synthesis Inc.</b><br>최우백(공대 76)<br>(404) 801-1412<br>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
| <b>김일영 성상내과</b><br><b>* 김일영(의대 65)</b><br>(323) 662-1175<br>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 <b>용수산 Yong Su San</b><br>Traditional Korean Cuisine<br>213-368-3042<br>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 <b>개산관리</b><br><b>IPM Wozth Management</b><br>이태영(법대 60)<br>(410) 777-8081 ext158<br>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 <b>IL-IN 시카고</b><br><b>의료 / 내외과 / 전문의 / 치과</b><br><b>Suh Sang Hun, MDPC</b><br>서상헌(의대 65)<br>(773) 522-2010<br>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
| <b>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b><br><b>정수만(의대 66)</b> (714) 539-6414<br>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br>이종훈(상대 74)<br>(562)633-7400<br>7212 Alondra Blvd.,<br>Paramount CA 90723                                                                                                       | <b>Fairney Asset Corporation</b><br>남옥현(상대 84)<br>301-279-6969<br>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 <b>* 이준우 치과</b><br><b>이준우(치대 54)</b> (847) 390-7474<br>9101 Greenwood Ave, Suite #301<br>Niles, IL 60714                                              |
| <b>South Bay Cancer Center</b><br><b>나정자(간호 70)</b><br>310-678-4970 310-543-5327<br>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                                                                                                                                 | <b>변호사 / 법률사무소</b><br><b>Moon-Park &amp; Associates</b><br>박삼근(법대 75)<br>(703) 941-7395<br>7617 Little River Trpk #930<br>Annandale VA 22003 | <b>MA 뉴잉글랜드</b><br><b>병원/수의학 / 동물병원</b><br><b>Twin City Animal Hospital</b><br>원상래(수의 62)<br>(978) 343-3049<br>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 <b>클리닉</b><br><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br>이상대(농대 80)<br>909-682-3800(0) 714-323-8612(C)<br>20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 <b>북 가주</b><br><b>장단 / 컨설팅</b><br><b>두리하나 결혼정보</b><br>6년 전 설립된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실도와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시댁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회원. 정지선(상대 66)<br>(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9nites.com | <b>부동산 / 공기업</b><br><b>BPS Appraisal Company</b><br>박봉원(농대 69)<br>(703) 750-1707<br>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                                                                                                                                                       |
| <b>케이발</b><br><b>LA Supply</b><br><b>전승택(사대 60)</b><br>(562)-404-1502<br>13700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b>수의학 / 동물병원</b><br><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br>한상봉(수의대 67)<br>(310) 232-3465<br>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                                                                                                                                                       |
| <b>컴퓨터/컨설팅</b><br><b>Computer Pro</b><br>한재우 (공대 83)<br>(310) 626-6391<br>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 <b>의료/전문/치과/전문의원</b><br><b>박희래 한의원</b><br>임희래(간호대 73)<br>(831) 818-2959<br>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                                                                                                                                              |                                                                                                                                                       |

### “동문 업소록을 재정비 합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또한 개별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동문 업소록을 정비합니다.

이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여러 사업 내용을 미주 각 동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소록에 게재되는 동문들 중 일부가 보내오는 광고비는 동창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들 중 일부는 그동안 업소록 게재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내지 않으려는 광고비를 내는 동문들에 대한 업소록 중심으로 좀 더 보기 좋게 구성하여 게재해드릴 계획이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NJ-NY 뉴욕/뉴저지

## 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도발)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 공인회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윤희(성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경원(성대 64)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학대 64)  
212-760-1768 (917)647-0696  
38 W 32St Suite #5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Young Tai Choi E.A.  
최영태(문리 67)  
212-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 리태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8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연봉원(문리 61)  
212-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Tai Cho, Attorney at Law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914)762-0432  
445 5th Ave., Suite 8E New York NY 10016  
taicho@tlo.com

##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이재현(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코스모 부동산  
이재덕(법대 60) 201-944-4949(O)  
201-784-3367(C)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Nothern Realty  
김은희(간호대 71)  
(718)229-4500, (917)686-3360  
45-22 Little Neck PKWY #5 Little Neck  
NY 11362, eunicekim RE@gmail.com

##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 의료/내과/전문업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 사역/사업/법인

Women In Need Center  
무지개의 집 여성 청소년센터  
김은경(음대 82)  
P.O.Box 540329 Flushing NY 11354

## NV 네바다

## 의료/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정중(치대 66)  
702-394-2828 702-687-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dental1v.com

## OR 오레곤

Fi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9-5393  
P.O.7418 Beaverton OR 97007

\* 월별 한인교회  
최근남(법대 63)  
503-231-19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 PA 필라델피아

## 동맹병원

GREGORY K. JOD, D.V.M.  
MICHELLE CAMPBELL, V.M.D.  
JOAN CARROLL, V.M.D.



GREGORY K. JOD, D.V.M.  
MICHELLE CAMPBELL, V.M.D.  
JOAN CARROLL, V.M.D.  
Telephone: (215) 742-9332  
Fax: (215) 742-9332  
Email: gkjd@gregorykjd.com

주거복(수학대 68)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웃으며  
삼시다!”

## 목사님은 약장사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 죽적 제형하고 있었다.  
자신의 심문 자제를 기다리던 목사는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응답이 왔다.  
드디어 인민군이 물었다.  
“당신을 뭐하는 사람이요?”  
목사는 자신 있게, “나는 약장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무슨 약을 파요?” 하고 인민군이 제자 물었다.  
목사는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하고 말했다.  
인민군이 무슨 말인지 몰라 골똘히 생각하는 처지가 되니 “흥과!” 라고 되쳤다.

## 아가씨와 택시기사

어떤 아가씨가 승을 열백여에 급히 택시를 잡았다.  
“아가씨 저는 쫓기고 있어요. 아무 데나 빨리만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영문을 몰라 하자 아가씨가 계속했다.  
“뒤의 택시가 저를 쫓아오고 있던 말이예요.”  
마침내 뒤에서 오던 택시를 완전히 따돌리게 됐다.  
그러자 궁금해진 기사가 물었다.  
“아가씨 무슨 일로 쫓기는 겁니까?”  
그러자 아가씨가 떠날하게 말했다.  
“아, 제가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내었거든요.”

## 중국집 전화

점심을 먹으려고 어떤 부인이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다.  
30분이 지나도 배달을 오지 않았다.  
부인: 중국집이요? 아까 짜장면 시켰는데요.  
중국집: 네 출발했습니다.

부인: 그데요? 아직 출발 앞섰으면 뭘 수속 하나 더 시키라고 했거든요.  
중국집: 아, 출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앞섰네요!  
부인: 진짜 출발 앞섰나요?  
중국집: 예! 출발 앞섰습니다.  
부인: 그럼 다행이네요. 전부 취소할게요.

## 세대별 만산

▶10대(금강산) 바위에 보고 사진만 봐도 아름답고, 그 고이를 알 수 없는 배에 그려진 신비한 곳, 찾아가기도 힘들고 타기도 힘든 산.  
▶20대(한라산) 너무 멀리 있어 큰 맘 먹어야 한 번 찾아가 볼 수 있는 곳, 아리운 산비탈이 기다리고 있는 산. 마음만 먹으면 정상정착이 어렵지 않은 활요 산.  
▶30대(설악산) 비록 산세는 험하고 봉우리는 높지만 등산을 따라가면 그런대로 타기 쉬운 산. 그 아름다운 자연의 끊임없는 메아리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  
▶40대(지리산) 배두대간의 대미를 장식하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면적 만큼이나 넓은 포용력으로 이제는 정상까지

찾기를 내주어 아무나 차를 타고 났을 수 있는 편인 산.  
▶50대(내장산) 평소엔 잊고 살다가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 오면 빠르게 지나가는 시절이 너무 아쉬워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산.  
▶60대(남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가까이 있어 계절에 수도 없이 올라가 본 곳, 구석구석 찾아가도 다 알고 있으나 평소에는 가볼 수 없는 산.  
▶70대(고향 뚝뚝산, 연덕) 멀리 상상속에서나 그리워 누구나 어린 시절 같이 놀던 그 고향 친구를 떠올려 몇 추억을 회상하는..., 그러나 아주 멀리 떠나고 좀처럼 가게 되지 못하는 고향의 뚝뚝산, 고향의 연덕.\*\*\*



## 고침

지난 10월호 16면 '이 달의 초대석' 이종표(의대 58) 동문의 기사 중 첫째 타이틀의 부제에서 'LD'는 'LD'의 잘못입니다.

중간 부분 중 "월간 Pace-maker 개발..."는 "월간 Safe Sheath 개발..."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본문 중 17면의 '解不有初解'有解'에서 인쇄과정 중 '有'자가 하나로 빠져 있습니다.

이 점 이종표 동문과 독자들에게 죄송하게 사과드립니다.

&lt;편집주간&gt;

## 원고를 ...

동문들의 지나온 과거를 그리는 연재를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김태환(문리대 60) 동문에게 이어 편찬회(식물영양학과 97) 교수와 '과'원하지 않는 '살의 열매'가 '새로'를 맡고 있던 10월호에는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동문들께서 여기에 마땅한 글을 쓰지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lt;편집주간&gt;

## '편집후기'

○<조봉환 박사님께 감사> 시카고의 조봉환(법대 53) 박사님께서 1면 Box기사 거리를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셨다. 1면에 게재된 바와 같이 건주진(법대 54) 동문께서는 지난 10월 29일 모교 From대학에서

'뛰어난 졸업생상'을 수상했는데 조봉환 박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는 직접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조봉환 박사님께서는 기사 내용도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게 보내주셔서 감佩하는 데도 전혀 무리가 없이 게재할

수 있었다. 조봉환 박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조봉환 박사님은 지난 10월호 13면에 게재된 바와 같이 워싱턴 대학의 대학원장과 가톨릭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하신 고 오기창(법대 50) 박사의 부인으로 조지 마운트 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자리가 거주자인 시카고에 이주했다.

○<반월집주인 안희를> 지난 9월 22일 'Brain Network Workshop' 행사 때문에 9월호 발행이 늦어진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그 후유증으로 10월호 발행이 또 늦어져 그만큼 배달도 지연되어 말았다. 당장 회보가 제때 배달되지 않으면

자신의 발행 여부와 까닭을 묻는 전화가 최근 아주 크게 늘고 있는데,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아예든 동창회보는 매월 오가 그 달 내로 독자들에게 배달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지난 9월호 이전에는 대부분 제때 발행됐다). 편집주간 본인은 각 동창회 주발행자께 현재와 함께 동창회보가 하루라도 빨리 배달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마감에 임박해서는 월경과 두 번씩은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까지 편집실에 출근해 일을 해오고 있다. 이는 모두가 동창회보 제때 발행과 배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나 만큼 부끄럽게 양해를...

&lt;편집주간&gt;

## 각 지부 회장단

|         |       |             |                                                |
|---------|-------|-------------|------------------------------------------------|
| 남가주     | 회장    | 서치원(공대 69)  |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
|         | 차기회장  | 김상천(문리 66)  | 714-399-0493                                   |
| 북가주     | 회장    | 이장우(문리 72)  |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
|         | 차기회장  |             |                                                |
| 뉴욕      | 회장    | 김창수(약대 64)  | 212-760-1768 changsokkimcpa@hotmail.com        |
|         | 차기회장  |             |                                                |
| 뉴잉글랜드   | 회장    | 정선주(간호 68)  | 781-674-2498 yungpark6@yahoo.com               |
|         | 차기회장  | 장수인(율대 76)  | 978-264-2988 sooinlee@comcast.com              |
| 달라스     | 회장    | 이 준(공대 73)  | 469-235-6196 junlee41@yahoo.com                |
|         | 차기회장  | 윤수경(율대 77)  | 972-248-8811                                   |
| 특키 마운틴스 | 회장    | 표한술(치대 58)  | 303-6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
|         | 차기회장  |             |                                                |
| 미네소타    | 회장    | 정은옥(간호대 75) |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
|         | 차기회장  |             |                                                |
| 샌디에고    | 회장    | 서정용(공대 81)  | 858-740-4843 cysuh727@gmail.com                |
|         | 차기회장  |             |                                                |
| 시카고     | 회장    | 김영호(의대 71)  | 708-922-0748 fhcnclUSA@gmail.com               |
|         | 차기회장  |             |                                                |
| 애리조나    | 회장    | 오원현(문리대)    | yho@rathoon.com                                |
|         | 차기회장  |             |                                                |
| 알래스카    | 회장    | 문재중(농대 55)  |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
|         | 차기회장  | 배석현(공대 58)  | 907-561-0618                                   |
| 오레곤     | 회장    | 이석진(공대 89)  | 503-317-5625 seokjin@gmail.com                 |
|         | 차기회장  |             |                                                |
| 오하이오    | 회장    | 송원길(의대 58)  |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
|         | 차기회장  |             |                                                |
| 워싱턴DC   | 회장    | 함은선(율대 77)  | 703-969-3006 samilaur12010@gmail.com           |
|         | 차기회장  |             |                                                |
| 워싱턴주    | 회장    | 윤석진(문리 64)  | 425-670-9067 spck@rocket.com                   |
|         | 차기회장  |             |                                                |
| 유타      | 회장    | 배유한(공대 73)  | 801-474-1945 you.bae@yahoo.com                 |
|         | 차기회장  |             |                                                |
| 조지아     | 회장    | 박 민(음대 80)  | 770-449-0000 minparkg@yahoo.com                |
|         | 차기회장  | 김정현(공대 74)  | 770-814-0618 jhkim@nabank.com                  |
| 중부 텍사스  | 회장    | 이명재(상대 68)  | 512-591-7739 267-902-1077 yjlee11023@yahoo.com |
|         | 차기회장  |             |                                                |
| 필리델피아   | 회장    | 민홍식(수리대 60) |                                                |
|         | 수석부회장 | 김정현(공대 68)  | 484-744-6785 dhk064@gmail.com                  |
| 플로리다    | 회장    | 박창익(농대 64)  | 954-599-3452 changikpark@aol.com               |
|         | 차기회장  |             |                                                |
| 캐롤라이나   | 회장    | 정신희(자연대 78) | 919-928-9696 sinho.jung@duke.edu               |
|         | 차기회장  | 이상구(자연대 78) | 919-610-2830 sleet09nc.rr.com                  |
| 하와이     | 회장    | 김용수(수리 75)  | 808-394-2369 ykim@hawaii.edu                   |
|         | 차기회장  |             |                                                |
| 하들랜드    | 회장    | 구명선(간호대 66) | 913-268-0228 chungm@yaho.com                   |
|         | 부회장   | 이성강(의대 70)  | 918-687-1115 918-360-9178 wanjunada@gmail.com  |
| 휴스턴     | 회장    | 박순덕(치대 58)  | 713-984-2066 taksoond@yahoo.com                |
|         | 차기회장  | 이호성(공대 72)  | 281-877-6584 hlee@eagle.org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이광호(농대 62)  |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
|         | 부회장   | 조석기(상대 71)  |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조윤희(자연대 82) | 403-620-8261 delhousted@hotmail.com            |
|         | 부회장   |             |                                                |

## 미주동창회 조직과임원단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 역대 회장

박윤호(문)·강수삼(의)·이병준(상)·오민석(법)·이종락(공)·오종조(치)·이정택(공)·이진구(농)

영예회장: 송승열(문)

## 제11대 회장: 김은중(상)

간사 회장: 오인환(문)

관리후원회 부회장: 노영호(공)

##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성주영(상)

총무국장: 박복지(문)

재무국장: 강석현(공)

사업국장: 이종택(상)

연구국장: 이상대(농)

간사: 김재영(농)·박정원(농)

기금모금위원장: 이종도(공)

IT개발위원장: 김영연(공대)

## 회보 임원

발행인: 김은중(상)

상임고문: 박석현(공)·김진현(문)

편집위원장: 지인수(상)

편집주간: 이기훈

편집위원: 조봉환(의)·박양준(문)·김재영(의)·나철상(문)·이종도(공)·김지영(사)·김성수(문)·이영민(문)·김종현(인문)

## 논설위원

김일환(치)·김기태(LA)·조종준(LA)·최홍원(LA)·박순(WA,DC)·윤희원(CH)·이형광(LA)·정종택(PA)·윤상대(NE)·김창수(NY)·임승래(SF)·장정숙(CH)·이석구(NY)·정요진(LA)

##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준민(공·PA)

위원: 한재원(의·IL)·이민연(법·TX)·윤상대(수·NE)·김지영(사·LA)·선용남(농·NY)·함은선(문·WA)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훈 편집주간

snuausaik@gmail.com

인쇄: China Times Printing, INC.

445 Nadara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one.com 952-932-7400 952-932-7404  
facebook.com/jayone 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jayonefoods

**“미주 서울대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김일영 심장내과  
김일영(의대 65) 323-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ds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리대

- **AMERICA** 인정하는 **프리미엄 비엔노** : 규약과 믿음, 세세까지 고려한 인연에는 No.1 비엔노입니다.
- **미국 비엔노** : 본국 비엔노와 인연을 확장, 곧 1인분이 넘는 차등 중 가장 잘 맞는 비엔노를 찾아드립니다.
- **미국 비엔노** : 본국 비엔노와 인연을 확장, 곧 1인분이 넘는 차등 중 가장 잘 맞는 비엔노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주지사 213-383-0077 /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뉴욕지사 212-947-2525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미주 서울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김주진(법대 54)·김정숙(의대 53)**



#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현황 보고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Report)

▶ **이사장 선임** = 2012년 9월 정기 이사회에서 이만택(의대 52) 이사장이 3년 임기의 이사장으로 재선임됐다. 이로써 이만택 이사장은 앞으로 2015년까지 이사장의 중임을 다시 맡게 됐다. 또한 이사회는 남익현 교수(공대·서울대 기획처장), 이석원 교수(사회대), 한종철 박사(치대·LA), 안지현 교수(인문대·발견기금본부장)를 3년임기 이사로 선출했다.

▶ **이홍표 박사 30만 달러 약정, 10만 달러 기부** = 로스앤젤레스 지역 심장내과 전문의 이홍표 박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 내과 연구 및 교육을 위해 30만 달러를 약정, 매년 10만 달러씩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에

서는 ‘이홍표 박사 순환기 내과 연구 및 교육기금’을 설정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박사는 모교 의대를 64년 졸업, 로스앤젤레스 South Bay에 위치한 Kaiser Medical Center에서 심장내과 과장으로 32년간 근무했다. 심장박동기 이식(Pace-maker implant)을 비롯한 관련 수술을 3,000건 이상 시행했고, Pace-maker 수술에 사용하는 Safe-Sheath를 독자적으로 고안하고 개발해 공헌하고 있다.

▶ **이종환 이사장 500억원 기증** = 서울대학교 도서관 신축관정 교육재단 이종환 이사장이 500억원을 모교에 기증해 이 기금을 바탕으로 서울대 도서관이 2014

년 증축, 준공될 예정이다. 이종환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 회장이며 “앞으로 3년 안에 재단 기금을 1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 **Heart Image Technology 19만 달러 상당 첨단기계 기부** = North Carolina 주 Durham에 소재한 심장촬영기기 회사 ‘Heart Image Technology’ (사장 Robert Judd)에서 서울대학교 심혈관 자기공명센터(Cardiovascular Magnetic Resonance Center(Duke-SNU Joint Project))에 19만 달러 상당의 영상관리시스템(Image Management System)을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을 통해 기부했다.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에 설정된 기금 (단위 US Dollar)

|                    |                               |
|--------------------|-------------------------------|
| ▶ 김기태-노정옥 의대 장학기금  | 500,000 약정<br>(현재 300,000 출원) |
| ▶ 김의신 의대 핵의학과 학술기금 | 200,000 약정<br>(현재 230,000 출원) |
| ▶ 박종수 수의대 장학기금     | 100,000 약정<br>(현재 75,000 출원)  |
| ▶ 김영석 아시아 연구소 지원기금 | 100,000 약정<br>(현재 50,000 출원)  |
| ▶ 이병준 법인과 지원기금     | 100,000 출원                    |
| ▶ 익명 수의대 동물병원 지원기금 | 100,000 출원                    |
| ▶ 익명 수의대 생명공학 지원기금 | 100,000 출원                    |
| ▶ 김기봉-신윤경 네 교수 장학금 | 90,000 출원                     |
| ▶ 익명(생명보험) 의대 장학기금 | 200,000 유증                    |

### 총 모금액 (단위 US Dollar)

|                   |         |
|-------------------|---------|
| ▶ 2010년도 모금액      | 354,470 |
| ▶ 2011년도 모금액      | 514,180 |
| ▶ 2012년도 모금액 (현재) | 839,400 |

### 2012년도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지급계획 (단위 US Dollar)

|                                                                                               |           |
|-----------------------------------------------------------------------------------------------|-----------|
| ▶ 김기태-노정옥 장학금 의대학생                                                                            | 1명 5,000  |
| ▶ 김의신 핵의학과 학술지원                                                                               |           |
| ▶ 김은섭-임현재 장학금 의대 대기연수                                                                         | 1명 2,000  |
| ▶ 박종락 장학금 수의대학생                                                                               | 1명 5,000  |
| ▶ 강창홍 통증연구금 의대 마취통증과                                                                          |           |
| ▶ Goldman Sachs 장학금 학생 1인당 5,000<br>(경영학과 5명 경제학부 5명 사회복지학과 5명 컴퓨터 공학부 5명 등 총 20명, 총 100,000) |           |
| ▶ 김영석 아시아연구소 기금                                                                               | 50,000    |
| ▶ 이희백 장학금 의대생 (1인당 5,000)                                                                     | 2명 10,000 |
| ▶ 익명 수의대 동물병원 지원금                                                                             | 100,000   |
| ▶ 익명 수의대 생명공학 지원금                                                                             | 100,000   |
| ▶ 사물계획서 및 지원 요청서 접수 후 지급 예정                                                                   |           |
| ▶ 기타                                                                                          |           |

Qualcomm 장학금 20만 달러는 서울대 발견기금을 통해 공대 대학원생에게 이미 지급됐음. 특히 Qualcomm 장학금을 추천해 기부를 이루어준 신종원(공대)·동문과 Goldman Sachs 장학금을 추천해 기부를 이루어준 안상균(경제) 동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미국 IRS에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기부금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이만택(이사장·FA)·김형주(재무이사·서울대)·남익현(이사·서울대 기획처장)·이석원(이사·서울대)  
한종철(이사·LA)·안지현(발견기금본부장·서울대)·이경림(재무·NY)·김인중(간사·LA)·변지훈(간사·서울)